

## Alpha fetoprotein (AFP) 생성 위암에 대한 임상적 고찰

서울중앙병원 소화기내과, 진단병리과<sup>†</sup>

주연호\*, 정훈용, 강경훈<sup>†</sup>, 양석균, 김해련, 홍원선, 서동진, 민영일

**목적:** AFP를 생성하는 위암은 드물어 일본에서는 전체 위암의 5% 이하로 보고되어 있으며, 병리학적으로 반드시 간양(hepatoid) 분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 간 전이를 하여 위암 중에서도 예후가 나쁜 아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AFP 생성 위암에 대한 임상적, 병리학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서울중앙병원에서 위암으로 진단 받고 AFP이 측정된 540예 중 간염, 간 경화, HBsAg 양성, HCV Ab 양성 등의 경우를 제외한 후 AFP 값이 20 ng/ml 이상인 32예(5.9%)를 대상으로 위암의 조직학적 유형, 간 전이 여부, 생존 기간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32명의 평균 연령은 57.7세였고, 남녀 비는 3.6 : 1이었다. 위암의 위치는 유문부에 22예(69%)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위체부에 7예, 위각부에 4예, 분문부에 4예가 있었다. 육안적 분류상 초기 위암이 3예였고 나머지 29예(91%)는 진행 위암이었다. 진행 위암 중 20예가 Borrmann type III이었다. 조직학적으로는 선암이 29예(91%), 간양 분화암이 2예, 미분화 암이 1예였다. 간 전이는 위암의 진단과 동시에 발견된 경우가 19예, 위암의 진단 후에 발생한 경우가 8예로, 총 27예(84%)에서 관찰되었다. 초기 위암 3예에서도 2예에서 간 전이가 관찰되었다. 위암의 진단 후에 간 전이가 발생한 8예 중 6예에서 근치적 절제술이 시행되었으며, 간 전이까지의 시간은 평균 10.9개월(1-29개월)이었다. 간 전이가 없었던 5예중 1예는 경부 임파절 전이가 있었고, 1예는 십이지장 벽에 국소 전이가 있었으며, 3예에서만 원격 전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AFP를 생성하는 위암은 드물지만, 대부분 초기에 간 전이를 하여 예후가 나쁘다. 따라서 AFP의 생성 여부는 위암에서 예후 인자로 이용될 수도 있으며, 초기에 간 전이를 일으킨 위암에서는 AFP이 종양표시자로 고려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Carcinoma en cuirasse & nodular carcinoma by gastric ca. (위암에 의한 경결 및 결절성 병변을 보인 전이피부암 1예)

광주 보훈병원 내과, 피부과\*, 해부병리과\*\*

염형렬 · 백종철 · 이형우\* · 고향미\*\* · 강현석 · 김용록 · 임종철 · 류형선 · 명제일 · 김 완

위암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한 악성 종양으로 임상 증상 및 중후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병기가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내부 장기암의 피부 전이는 비교적 드물어 0.5-4.4%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남자에서는 폐암, 위암, 간암 등이, 여자에서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폐암, 위암 등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내부 장기암의 피부로의 전이는 임상적으로 결절형(nodular carcinoma), 염증형(carcinoma erysipelatoids), 경결형(carcinoma en cuirasse)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중 결절형이 가장 흔하다.

저자들은 위암에서 경부의 경결형 및 흉부와 복부의 다발성 결절성 피부전이를 가진 환자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36세 남자환자가 1달 전부터 발생한 경부와 복부의 무통성의 다발성 결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 및 가족력상 특기 사항 없었으며, 흉부와 복부의 X선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으며 혈액검사, 뇨검사상 정상범위에 있었고 종양인자 AFP과 CEA는 정상범위였다. 위내시경검사상 진행성 위암 Type IV의 소견을 보였고 조직검사서선암의 소견을 보였다. 복부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경부의 경결성 병변과 흉부 및 복부의 결절성 병변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선암의 소견을 보였다. 이후 환자는 외래 추적관찰중 사망하였다.